**예수 부활이 복음인 이유**

<마태복음 28장 1-20절>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계속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급히 하늘로부터 내려와 육중한 돌문을 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뭍히셨던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마침내 그분은 살아나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여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그것은 쓸 데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에 앞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며,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 우리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큰 선박 사고가 나서 수많은 인명이 죽거나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유가족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편법, 속임수와 무책임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현실이 고스란히 폭로되었습니다.

그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에 또한 많은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한국사회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 사고 당사자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비극을 겪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실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둡고 답답한 현실을 요즘 우리는 좀더 가까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이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하신 말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을 대해보면 대해볼수록, 세상을 접해보면 접해볼수록, 이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 많은 죄들을 달리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한번도 상처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제껏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한번도 상처준 적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마치 온 몸이 가시로 덮인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계속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살아갑니다.

교묘하게 서로 모욕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학대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따돌리면서, 때로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상처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상처 받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하며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세련된 모습으로 살다가도, 때로는 속으로 소리없이 피흘리며 아픔을 삼켜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더 서글픈 사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상처 받고 상처 주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런 내 모습을 내가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을지라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찌르고 피흘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탄식할 때, 그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현실을 바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부활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결코 추상적인 교리나 억지로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서로 피흘리며 죽고 죽이는 이 죄악된 인간 현실의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세상엔 피가 마를 날이 없고, 여기저기서 고통스런 신음이 새어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귀를 틀어막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피흘리며 아파하는데, 그 누구도 이 현실을 책임질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 아무도 자신을 가해자로 분명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무덤, 누가 이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죄악된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악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함께 당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악의 가해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받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셔서 온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셨을 때, 세상의 모든 죄악이 그분의 몸에 집약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을 향해 서로 저지르고 있는 죄악으로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죄악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우리가 흘렸어야 할 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예수 십자가는 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에 그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억울하게 죽은 한 의로운 선지자로 기억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부조리의 무덤에 삼켜진 힘없는 여러 의인들 가운데 하나로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혹시나 운이 좋으면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시체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를 품고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들은 무서우리만큼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은 그 부활의 첫 증인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후에 그 소식을 전해듣게 되는 제자들에게도 그것은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 부활의 소식을 다시 듣는 우리에게도 그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진 사람들, 인생의 거친 풍랑에 휩쓸려 널부러진 패배자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고통과 절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을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은 단연코 복된 소식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이 세상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인생들에게, 진정 복된 소식은 결코 우리들 속에서 들려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외부로부터,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 결코 삼킬 수 없는 모자람이 없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 부활의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게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천사들로부터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 처음의 두려움은 곧이어 “큰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천지개벽의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 가운데 그들이 뒤이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새벽에 무덤을 보러 왔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고통에 짓눌려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여기서 더 나아질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적침체에 빠졌던 엘리야처럼, 차라리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시니, 그 예수님 무덤 옆에 가만히 기대어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끝이 아닙니다! 아직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결코 그 무덤 언저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그 절망의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무덤을 떠나십시오!

예수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로, 예수 부활의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 앞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그곳에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갈릴리 지역과 남쪽의 유대 지역 사이를 왕래하며 제자들과 더불어 여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 앞서가고 계시니, 어서 이 여정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느 때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어서 좇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박은 우리들이 이제 무슨 염치로 다시 예수님 옆에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다시 주님을 따른다 해도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던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인사하십니다: “안녕!”

우리말 성경은 여기에 쓰인 헬라어 Chairete를 “평안하냐”로 번역했지만, 사실 이 말은 당시 거리에서 흔히 쓰이던 친근한 인사말입니다.

즉 영어로는 “Hi”, 한국어로는 “안녕”에 해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고초를 겪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씀이 “안녕!”이었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여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고상하게 표현된 구절을 좀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얘들아, 니네 왜 이러니? 그러지 마. 자 봐, 나야 나. 그래 나 살아났어. 나 괜찮아. 자, 이제 얼른 일어나서, 우리 항상 같이 다니던 그 녀석들 있지. 걔네들 한테 갈릴리로 좀 오라고 해라. 내 먼저 출발할 테니까 얼른 따라 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지셨던 십자가로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은근히 겁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대신 그 고통 다 겪으시고도, 내가 미안해 할까봐, 날 보고 가볍게 “안녕!” 인사하시고는, “뭐해, 빨리 가자!” 하시며 그냥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그럼 나는 멋적게 뒷머리 한번 긁적이고는 그냥 따라나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들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나서는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 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의 시 <예수, 모자람이 없는 생명으로 부활하시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삶은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나 죽음에 삼킴을 당하지는 않는다.

죽음을 통하여

삶은 완성되고 승리한다.

인간은 죽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하기 위하여 죽는다.

셋째로, 예수 부활의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든든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게 합니다.

마침내 열한 제자가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침내 도마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실제로 손을 넣어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곧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보지 못하고도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어떻게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까지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18-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세 가지 든든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전해져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부활의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든든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서셨던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또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지나 동터오르는 부활의 새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위대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가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그의 평생의 친구였던 투르나이젠과 대화를 나누던 중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으로 차 있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으로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슬픔과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 누가 이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마침내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모자람이 없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진정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을 다시 듣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든든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당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도 약동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

**가벼운 마음, 든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전하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